

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배추·무 비축물량 등 1만 톤 공급, 할인지원 등 김장재료 가격 안정 집중 지원
-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에너지 상품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대폭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2(목) 07: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②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③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④미(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농림산업복지해수중소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국세청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먼저, 지난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고 국제(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아직 국제(글로벌)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5.1%) 전환되고,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어 회복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외교 후속성과 조기 창출, 현장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의 경우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이상저온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물가는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현장에서부터 물가를 관리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고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 인하하도록 보조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에너지 상품권(바우처)과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 대폭 확대했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3.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044-201-2234)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44-203-5161)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